전략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김장열의 '요것만'

視界Zero. 애심종목+현금 40% 만 따르라



<실제 전쟁을 제외하곤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23일 중국의 750억달러 관세 부과 조치에 미국 맞대응(10월 1일부터 기존 25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 9월 1일부터 신규 부과되는 3,000억달러의 일부 중국산 제품의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 금리인하 힌트 주지 않은 잭슨홀미팅 연설, 북한 24일 오전 미상발사체/탄도미사일 또 발사 등. 시계제로이다.

<강대강 대결의 원인은 달라질 상대 위상 인정하지 않아서. 해결은 인정부터 or 오랫동안 걷히지 않을 안개 속에>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달라진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적 위상이 달라진 한국을 예전 식민지 지배의 추억으로 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가마우지 경제하에 처박아 놓을 수 있다고 믿고 한반도의 추가적 부상(浮上)을 무조건 막겠다고 어깃장을 놓고있다, 수출규제라는 무기로 일본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용어)으로 키워와 Made in China 2025 (중국제조 2025, 중국산업고도화전략) 계획으로 추진력을 높이고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제시한 로드맵, 중국몽을 (2035년 중국 사회줓의 현대화 (국방.군대 현대화 기본화), 2050년 최강국 등극) 한 여름밤의 꿈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이. 그리고 대화와 제재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이상적 rhetoric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는 미국 Vs. 중국.러시아에 기대며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북한. 이러한 강대강의 대결은 가시거리 1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 상황이 (시속 50km이하 운행 또는 통행제한) 언제나 걷힐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1900~1960 박스의 일시 이탈 가능성. 애심종목 (전략적 포지셔닝 좋은 것 중심)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

아래는 지난주 김장열의 '요것만' (8/19)의 내용이었다. "근본적인 결론은 시장은 1) 단기 추가 금리인하 폭 확대 (FED)와 2)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트럼프-시진핑)기본 전제가 되어야 주식시장은 의미있는 안정화와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그렇지 않으면 선별적 defensive stock 제외한 의미있는 중단기 투자 시도는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다.~~중략~~ 코스피는 기존 1900~1960전망에서 한.일 무역분쟁/ 홍콩 시위 이슈의 숨고르기, 8월 23일 잭슨홀미팅 연설의 긍정적 코멘트 가정하에 유지한다. 단, 이 전제의 흔들림은 1800중반까지의 하락을 현실화가 된다.

하지만, 차별없이 시장 패닉과 함께 낙폭 확대시 저가 매수 유효한 종목은 어려워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3가지 그룹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과 포트폴리오 후보종목이다. 1 <2 <3 일수록 높은 베타/ 상대적 하이 리스크&하이리턴 성격.1) Defensiv하면서도 안정적 성장 지속이 예상되는 Naver, 엔씨소프트. 2) 글로벌 지배력 높은 업체들은 (삼성/하이닉스등) 경쟁사가 먼저 더 심하게 어려워지면서 산업 구조조정효과를 기대하는 시기가 빨리 올 가능성.3)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세 종목 (5G, 2차전지, 소재, 해외시장 개척 의료기기)으로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덕산네오룩스, 삼성SDI, 디오 등."

기본적으로 강대강 대치의 안개 속에서도 협상의 자세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전제와 현재의 긴장상태의 단기 해결책 도출은 어렵다는 예상하에 , 우리는 3가지 측면에 가시성이 "좋은" 주식 중심으로 애심종목을 업데이트 제공한다. 하반기 실적 성장이 좋은, 중기 전략적 포지셔닝이 좋은, 운이 좋은.

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애심종목 15개와 현금 40%의 조합을 제시한다. (시가총액순) SK하이닉스, Naver, 삼성SDI, 엔씨소프트, 케이엠더블유, 일진머티리얼즈, 에스에프에이, SKC코오롱PI, DB하이텍, NHN한국사이버결제, 동국제약, 덕산네오룩스, 이노와이어리스, 쎄트렉아이, 종근당바이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공통 사항인데 특히 상반기까지 상대적 부진대비 개선또는 지속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케이엠더블유, 에스에프에이, DB하이텍이 주목. 중기 전략적 포지셔닝 (신제품/신사업/신고객 모멘텀, 국산화 수혜, 중장기 대세 산업군 등) 측면의 긍정적 기대는 Naver, 엔씨소프트, 일진머티리얼즈, 에스에프에이, SKC코오롱PI, NHN한국사이버결제, 덕산네오룩스, 쎄트렉아이 등이다.

전반적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요것만에서 유지한 1900~1960선에서 일시적 1900하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없이 Panic 매도 분위기로 하락시, 우리의 애심종목 분할 매수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편입 : 일진머티리얼즈, NHN한국사이버결제

편출 : 테스나, 비에이치

현금비중 : 30% -> 40%

섹터	종목명	코드	시가총액 (억원)	주가 등락률 (1W, %)	주가 등락률 (1M, %)
IT	SK하이닉스	000660	541,634	-2.6	-5.6
IT	삼성SDI	006400	169,505	-2.4	1.7
IT	에스에프에이	056190	14,453	0.0	0.6
IT	SKC코오롱PI	178920	9,294	3.8	2.9
IT	DB하이텍	000990	6,571	3.9	5.3
IT	덕산네오룩스	213420	4,466	0.8	2.2
IT	일진머티리얼즈	020150	19,643	3.8	7.4
통신장비	케이엠더블유	032500	23,960	6.2	25.0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	073490	2,014	0.6	21.3
SW	NAVER	035420	244,748	6.5	21.2
제약	동국제약	086450	5,726	1.4	-8.3
제약	종근당바이오	063160	1,438	2.2	5.2
게임	엔씨소프트	036570	116,536	2.5	6.5
기타	쎄트렉아이	099320	1,541	11.3	14.9
기타	NHN한국사이버결제	060250	5,031	-3.5	18.1
현금비중	40%				
KOSPI				-5.4	-7.3
KOSDAQ				2.9	-8.9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61.5%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1.1%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37.4%	
		합계		100.0%	